

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論에

관한 研究 (其一)

姜 命 圭

<目 次>

I. 問題의 提起	研究成果(以下次號掲載)
II. 傳統的 經濟史 研究方法의 諸問題點	V. New Economic History 研究方法의 問題點과 批判
III. 學說史의 素描	VI. 結 論
IV.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方法과	

I. 問題의 提起

이 論文에서 筆者가 다루고자 하는 問題는 最近 10 餘年間 특히 美國의 經濟史研究에서 새로운 傾向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所謂 New Economic History⁽¹⁾의 接近方法을 整理·評價함에 있다. 즉 1960 年代 初부터 美國經濟史學界에 一大旋風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衝擊의 波動으로 經濟史의 研究方法에 있어 결코 輕視할 수 없는 論議를 提起시키고 있는 「新經濟史」의 性格을 究明하여 그 本質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는 New Economic History의 接近方法을 整理·究明하여야 必要性은 우리의 經濟史 研究에 있어서도 方法論的 省察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하는 念願이 있기 때문이며, 經濟史 方法論 研究의 深化를 通하여 國際學界의 潮流를 展望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經濟史 研究의 內實을 期함에 一助가 되기를 希求하기 때문이다.⁽²⁾

(1) New Economic History(新經濟史)란 名稱 以外에도 Econometric History(計量經濟史), Cliometrics(計量歷史學) 또는 Quantitative Economic History(數量經濟史) 등으로도 불린다.

(2) 近者에 우리 나라 史學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傾向으로서 첫째 經濟史에 대한 關心의 漸高와, 둘째 所謂 民族主義史學의 追求라는 一見 相互無關한듯 하면서도 內容上 密接히 聯關된 문제에 關心이 높아지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는데, 이는 韓國史學의 進一步의 可能性을 보여 주는 面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의 進展過程에서 露出되고 있는 몇가지의 疑問點이 있다. 우선 歷史上의 經濟문제들 다룰 때 우리 一般史學界에서 通用되고 있는 分析方法이나 理論模型은 果然 어떠한 社會科學의 基礎에 立脚한 것인가? 한편 그러면 經濟史

여기서 筆者는 「新經濟史」研究方法이 發生하게 된 背景과 이것이 傳統의 方法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새 接近法의 構造・內容이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問題點은 무엇인가 등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그러나 筆者의 이 試圖에서 이 자리에 銘記해 두코자 하는 두 가지 點이 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主題인 New Economic History가 學界의 主流를 이루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는 點이다. 挑發的인(provocative) 하나의 새 傾向이지, 그로 因해서 在來의 傳統의인 「文學的」(literary) 經濟史 研究方法이 全部 無價値해지고 數量的 接近方法(quantitative approach)이 支配的이 되었다는 主張은 決코 아니다. 둘째는 筆者 自身の 立場에 관련되는 點인데 이 論文을 통해서 筆者가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方法에 모든 點에서 贊同하고자 한 意圖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論文의 趣旨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經濟史 研究方法의 整理・究明을 통해서 이를 客觀的으로 紹介함에 있지, 이의 價値判斷을 하거나 筆者의 立場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자 한다.

그러던 美國 經濟史學界에서 New Economic History는 어떠한 背景에서 出發된 것인가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여기서 問題意識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經濟史의 學問的 性格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經濟史는 廣意로 볼 때 過去의 經濟的 成果를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며 따라서 經濟史家는 經濟의 成長, 停滯, 衰退 등 그 變動・發展에 관심을 갖는 同時에, 이러한 經濟的 變動過程에 있어서의 人間의 厚生문제와, 그리고 經濟機構와 經濟的 成果 사이의 相互關係의 문제에 關心을 갖게 된다. 이 後者에 대한 關心은 必然的으로 社會의 制度的 構造에 관한 研究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經濟史가 往往 社會・政治史 같은 隣接分野의 領域에 흘러 넘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³⁾

그러나 經濟史가 經濟決定論(economic determinism)이나 그 밖의 어떠한 理念에 의한 人類의 中心史乃至 綜合史일 수가 없다고 보는 限 經濟史學 固有的 領域과 그 性格을 再 確認할 必要性을 痛感하는 바이다. 이러한 觀點에 볼 때 經濟史學의 主領域은 (1) 經濟的

學徒는 經濟史研究의 方法이나 科學的 分析手段의 驅使에 있어서 一般史學界에 果然 얼마나 앞서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이에 寄與하고 있으며 그 前提하고 있는 社會科學的 理論體系가 얼마나 專門的인 것인가? 다음에는 우리가 民族主義史學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科學이고 어디까지가 感情에 不過한 것인지, 世界史的 展開過程에는 이를 어떻게 定座시킬 수 있으며, 이에는 果然 民族感情이나 政治的 興奮이 얼마나 作用하고 있고, 現代社會科學의 메스를 加할 때 어떻게 變形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疑問點들은 通俗的인 歷史 研究方法에 대한 一大省察을 要求하고 있어 이 論文에서 다루고 있는 新經濟史接近方法의 研究가 이러한 문제들과의 關聯에서 決코 無價値하다고 볼 수 없음을 確信한다.

(3) Douglas C. North, Economic Histor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68, Vol. 6, p. 468.

時問을 통한 全般的 成長(또는 停滯 내지 衰退)과 그 決定要因, (2) 經濟成長 또는 衰退 過程에 있어서의 所得分配의 문제라 할 수 있고, 後者가 社會諸階層의 厚生문제를 포함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經濟史學의 性格規定을 하는데 있어서는 經濟史는 「歷史學에 屬하느냐 經濟學에 屬하느냐」 또는 經濟史研究에 있어서의 「理論과 歷史의 統合」 云云하는 傳來의 宿題가 解答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⁴⁾ 그러나 우리는 經濟史가 우선 經濟理論과는 現在의 問題보다 「過去」의 問題에 主된 關心이 있다는 點에서 區分되고, 一般歷史와는 過去社會의 「經濟的 側面」에 專門의 關心이 있다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一般化의 典據로서 體系的인 「理論」에 呼訴하고 資料操作에 있어서 計量的 方法을 使用한다는 點에서 區分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經濟史를 一般歷史에서 分離시켜 理論(經濟)과 歷史를 統合하는 데서 그 性格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氣運은 在來에 經濟史를 一般的 制度史의 經濟的 側面으로 把握하여 社會史와 經濟史의 區別이 없이 一般史家의 方法을 그대로 채택해 온 傳統的 經濟史研究과 判異한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經濟史의 「歷史性」이란 魔力에 이끌려 이를 一般史와의 關聯이라는 側面에만 焦點을 集中시키는 나머지 그 方法까지도 一般史家의 그것과 區別이 안 되어, 一般史家가 經濟的 側面에 관해서 研究한 것이나 所謂 經濟史家가 다룬 것이나 그 對象·方法에 있어서 何等の 差異가 없는 것이라던 經濟史學의 存立價値는 疑問視되지 않을 수 없다. 經濟史를 主로 一般史와의 關聯的 側面에서만 다루어 온 것은 經濟史研究가 制度史의 方向으로 치우치게 한 原因을 이루었으며, 또 經濟史의 接近方法이 一般史의 그것과 區別되지 않았다는 것은 經濟史研究에 있어서 理論(經濟)과 歷史의 乖離가 尤甚해진 原因을 이루고 있다. 經濟史學이 빈 箱子(empty box)가 될을 뵈하기 위해서는 그 關心對象을 制度史가 아닌 經濟自體의 發展(또는 衰退)에 두어야 하며, 또 이의 究明을 위해서는 高度로 발달된 理論의 分析手段을 活用하여야 될 것이다. 近年의 經濟史研究의 方向轉換이라 할 수 있는 「新經濟史」는 위와 같은 問題意識에서 出汎된 것임을 認識하여야 된다.

經濟史와 經濟理論의 再結合이란 측면으로 壓縮시킬 수 있는 新經濟史의 研究傾向은 主로 經濟科學의 다음과 같은 事情에서 發端된 몇 가지의 刺戟에 의하여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⁵⁾ 그 첫째는 經濟學者들이 漸次 經濟成長의 問題에 關心을 集中시켜 온 點

(4) Clapham, Postan, Tawney, Power, Ashton 같은 古典의 大家에서부터 Fisher, Hancock, Chambers, Pollard 같은 現役 經濟史家들에 이르기까지의 主로 英國經濟史家들에 의한 經濟史의 學問的 性格을 다룬 論文集으로서 各大學에서의 就任講義만 골라 翻譯收錄한 興味있는 文獻으로 小松芳喬監修 「經濟史の方法」(1969年) 參照.

(5) Douglas C. North, *op. cit.*, pp.468~9.

이다. 특히 二次大戰 以後 經濟學者들은 經濟發展의 諸要因과 先後進國間의 成長類型的 差異에 關心을 傾注하게 되면서, 設使 아직은 一般的 社會理論의 體系속에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經濟發展의 主要因을 抽出하게 되었다. 가령 技術의 國際間 傳播, 人間資本에의 投資, 要素 및 生産物市場의 效率化, 生産性增加의 原因 등에 관한 研究成果는 從來의 經濟史研究를 再評價하지 않을 수 없게 한 劃期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經濟學者들이 經濟學에서 설정하고 있는 假設을 보다 精密히 檢證하고자 하는 努力에서 비롯된 刺戟이다. 檢證可能한 作動的 命題의 開發에 經濟學者들의 關心이 커지면서 經濟史의 諸問題에 이를 擴大適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中에는 統計的 技術 및 方法의 利用과 同時에 經濟理論을 세심하게 利用하려는 計量經濟學의 發達에서 비롯된 바가 많다. 셋째의 刺戟劑는 歷史上의 數量的 情報가 多量化된다는 사실이다. 歷史上의 經濟的 成果에 관한 測定은 主로 經濟學者 또는 近年에는 經濟理論의 訓練을 받은 經濟史家의 課業이 되고 있음은 勿論이며, 特히 國民所得推計의 發達은 過去의 經濟的 實績을 測定하는데 寄與한 바가 多大한 것이다. 가령 Simon Kuznets 에 의한 國民所得의 國際比較, 物價史의 研究成果,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計量的 調查研究 등은 經濟史家들로 하여금 經驗的 資料에 接해서 自己의 命題를 體系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尠大한 數量的 情報를 증대시켜 주고 있다. 넷째로는 특히 美國에서 1950 年代末 乃至 60 年代初부터 經濟學科出身의 經濟史家가 活動하기 시작했다는 點이다. 50 年代初까지 美國經濟史學界는 순수한 史學專攻者들에 의해서 占有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學部에서 사용하는 經濟史教材가 1920 年代의 그것과 大體로 같은 것이어서, 經濟理論上의 「케인즈革命」이 經濟史學界에는 아무런 變化를 입히지 않은 채로 넘어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60 年代初부터 세 經濟理論에 의해서 武裝된 少壯 經濟史學者들이 輩出되면서부터 새로운 理論模型과 分析方法 그리고 새로운 統計技術과 資料處理에 의하여 在來의 傳統的 經濟史家들에 대한 一大挑戰을 展開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挑戰의 熱度는 낡은 經濟學의 斷片의 知識밖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現代經濟學의 「工學的」側面을 理解하지 못하는 傳統的 經濟史家들의 在來 學說이 一大修正을 꾀치 못하는 경우가 許多하게 되었으며, 可히 經濟史學의 革命이라 부를 수 있는 程度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見解가 나오게 되었다.⁽⁶⁾

오늘날 經濟史學에 있어서의 變化가 革命的인나의 與否는 且置한다 해도, 적어도 以上과 같은 네 가지의 刺戟과 背景은 經濟史學의 方向再調整(reorientation)을 모색하지 않을 수

(6) J.R.T. Hughes, "Fact and Theory in Economic History," in *The New Economic History*, edited by R. Andreano, 1970, p.48.

없게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科學의 方法과 計量的 分析手段의 體系的 利用에 의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情報은 新經濟史家들로 하여금 지금껏 얻어보지 못한 풍부한 歷史의 理解를 可能하게 하고 있는 터이다. 結局 經濟史學의 이와 같은 變革은 經濟學에 있어서 這間에 이룩해 온 刮目할 만한 發展의 成果를 뒤늦게 이제서야 消化해 감으로써 「理論과 歷史의 再結合」이란 傳來의 課題에 대한 現代版 解答이 되기를 希구하는 傾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問題意識을 갖는 新經濟史學의 構造的 性格을 보다 生生하게 理解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 在來의 傳統的 經濟史學이 갖는 問題點과 그 性格을 吟味해 보기로 하자.

II. 傳統的 經濟史 研究方法의 諸問題點

舊來의 歷史 研究方法이 갖는 問題點은 여러 가지 角度에서 論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新經濟史의 性格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 論文 本來의 意圖를 貫徹시키기 위하여 이에 가장 適合하다고 判定되는 George G.S. Murphy의 所說에서 지적되고 있는 問題點들을 吟味해 나가기로 하겠다. Murphy에 의하면 舊式의 歷史研究는 嚴密한 論理나 數學으로 뒷받침되는 「言語模型」(language model) 즉 一般理論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現代의 經驗主義 (empiricism)의 觀點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그 첫째는 이른바 「敘述 (description)에 의한 說明」에서 發端되는 문제점이다. 歷史家는 一般的으로 一定한 假設을 세우고 一定時期에 있어서의 歷史的 事件의 原因을 찾아 이를 敘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歷史研究의 節次에 있어 歷史家가 史料를 다룰 때의 基準은 始原의 假設과 價値判斷이 내포된 史家自身の 準據裝置 (frame of reference)인데 이에는 當該문제에 관한 既成의 情報도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準據裝置가 時間의 推移에 따라 變한다는 사실이다. 研究의 進行過程에서 이것이 變하기 때문에 以前의 「說明」을 訂正하게 되고 價値判斷 그 자체까지 訂正하는 수가 있다. 準據裝置內에 있어서의 諸說明이 一時에 變化를 겪게 되는 경우를 Kenneth Boulding은 「心像의 革命」(revolution in image)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확실히 歷史家는 過去에 관한 自己의 心像 (image)의 革新을 겪게 되고 이와 같은 心理的인 直觀의 變化를 가지고 過去歷史에 관한 「理解」를 增進시켰다고 「느끼는」 경우가 許多한 것이다.

(7) 以下는 主로 George G.S. Murphy, 'The "New" History,' in *The New Economic History*, edited by R.L. Andreano, *op. cit.*, pp.1-16 參照.

다음에 一但 研究된 結果를 叙述함에 있어서는 選定하는 文章이 一般的이지 못하고 恣意的이 되기 쉽다. 가령 英國經濟史家 Eileen Power 의 *Medieval People* 은 거의 全體가 個人들에 관한 記述로 構成되어 있는 데도 이 特定人들이 全體人口의 代表值를 갖는 平均人으로 叙述되고 있는 것이다.

歷史家도 法則을 찾고 一般化를 試圖하지만 그것은 「制限된 一般化」이거나 「準法則」이지 普遍妥當性 있는 法則이 아니다. 特定한 時間・場所에만 妥當되고 一回의인 것이기 때문에 그 價値가 限定될 뿐 아니라 立場을 달리하면 누구나가 相異한 法則을 찾아 낼 수 있다는 문제가 發生한다. 예를 들면 「産業革命은 英國의 殖民地市場의 擴大에 의해서 發生했다」는 叙述이 있다. 이러한 說明은 暗黙裡에 一般法則에 呼訴하는 것이면서도 演繹的 論理나 統計의 推論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讀者의 常識에 呼訴하는 記述方法이다. 以上은 歷史家가 叙述的 方法을 歷史研究에 適用할 때 일어나는 가장 重要한 문제점들이다.

둘째의 문제는, 하나의 歷史的 事件에 관하여 수많은 說明이 共存한다는 점이다. 가령 美國南北戰爭의 原因에 관해서 數百가지의 文章式 歷史가 叙述되었고 그 하나하나의 文章은 모두 虛僞가 아니지만, 막상 어느 歷史家의 說明을 채택할 것인가는 決定하기 어렵다. 기껏해서 어느 歷史家가 보다 想像力이 풍부한지, 「洞察力」이 강한지 또는 보다 「徹底」한지를 말 할 수 있을 뿐, 黑白이나 正否를 判別할 수는 없게 된다. 結局 舊來의 歷史研究方法에는 假設의 言語가 이를 拒否할 수 있기 때문에 「正確한」 說明은 하나도 없는 경우조차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셋째로, 舊式의 歷史에서 叙述文章 사이의 連結詞는 論理構造上 何等の 意味가 없는 것이다. 歷史家들이 흔히 쓰는 「그러므로」 「그러나」 또는 「이러나」 등의 連結詞는 暗黙裡에 一般法則 또는 讀者의 常識에 호소하는 表現方式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心理學的인 것이 論理的인 說得力은 되지 못한다.

넷째는, 戰略의 用語나 概念이 舊式 歷史에서는 形式化되지 못한 點이다. 歷史叙述에서 論議의 核心문제는 그것이 論理的 乃至 數學的 內容을 갖는 限 이를 形式化된 概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舊式 歷史에서는 「一般化된 聰明의 淳化」라는 漠然한 說明이 있을 뿐이다. 가령 「戰爭의 原因을 설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偉人을 無視하고 社會的 諸要因에 焦點을 두라」고 하는 戰略이 있지만 문제의 社會的 諸要因에 어떻게 接近하느냐 하는 것은 未解決이다. 科學的인 節次나 보다 形式化된 技術의 應用에 의해서 確立되는 戰略의 概念・術語가 切實한 것이며, 예를 들어 흔한 歷史문제의 하나로서 生活水準의 문

제가 나오면 오늘날 歷史家는 거의 自動的으로 「物價指數」란 戰略的 術語로써 문제를 打開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는, 編史技術이 標準化되지 못한 點이다. 가령 發展段階說을 論할 때 아직도 著名 史家 中心의 傳記的 性格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歷史의 理論史가 歷史分析史라는 技術的 性格임을 認識치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는, 舊式 歷史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味 (meaning)에 差異가 甚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理由의 하나는 歷史를 하나의 藝術(art)로 보는 데서 緣由하는데, 科學에서는 그 用語가 簡素化되고 標準化·規格化되는데 反하여, 文學藝術에서는 同一한 用語가 音調의 必要와 散文의 全般的 構造와 語句의 韻律 등에 適合시켜야 될 여러가지 目的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 用語의 뜻이 曖昧하여 論戰을 일으키고 標準言語가 없기 때문에 個個의 用語가 相異한 意味를 갖는 경우가 發生한다. 經濟學에서 흔히 쓰이는 「構造」란 用語가 判異한 여러가지 뜻으로 利用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지만 만일 우리가 이를 形式化된 言語로 使用한다면 애매한 點이 회피될 성질의 것이다.⁽⁸⁾ 이 밖에도 舊式歷史家가 區區한 解釋 (interpretation)이 可能한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문제가 더 複雜해지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産業革命」 또는 「暗黑時代」 같은 그 時間的 길이가 모호한 用語가 그와 같은 경우로 指摘될 수 있다.

일곱째는, 「假說」의 意味가 變化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본 「用語」의 해석에 있어서의 多樣性和 關聯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Turner의 假說로 「自由의 土地」와 「美國의 西部開拓」이 「美國의 發展」을 가져 왔다는 說明에 관해서 論爭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假說의 模糊性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가령 「美國의 發展」이란 命題하나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은 多樣한 뜻이 內包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1) 典型的인 美國人의 個性的 特徵의 發達.
- (2) 民主主義의 發達. 이 말 自體는 一團의 해석이 可能한 뜻을 가졌다. 가령 地域社會의 意思決定을, 特定人에게 委任하고 이 特定人을 投票로 선정하는 方式이 아니고 廣範한 階層이 이에 직접 參與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 (3) 政治機構가 地方, 州, 聯邦의 水準에서 유럽의 模型과 다른 點.
- (4) 法體系가 유럽의 그것과 다른 點.

(8) 經濟學上의 「構造」概念에 관해서는 下記 文獻參照, Fritz Machlup, "Structure and Structural Change: Weaselwords and Jargon," in *Zeitschrift für Nationalökonomie*, Aug., 1958, pp.280-98. Wassily Leontief, "Structural Change," i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the American Economy*,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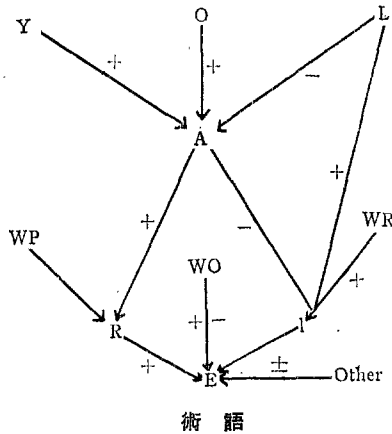
- (5) 國民純生產(NNP) 및 그 構成要素의 時間的 經路.
- (6) 가령 企業, 銀行, 産業, 勞動機構, 農業組織 같은 經濟機構의 性格.
- (7) 一定時點에서와 一定時間에 걸쳐 個人이 自己의 所得과 地位를 改善시킬 수 있는 諸機會.
- (8) 美國의 對外政策에 있어서의 經濟社會的 關係

以上이 列擧할 수 있는 全部는 아니지만 代表的인 해석들이다. 또 하나의 事例로 「自由土地」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은 해석이 提示될 수 있다.

- (1) 所有權이 賦與되지 않은 土地, 接收할 수 있는 土地.
- (2) 既占有者를 몰아내고 쉽게 取得되는 土地.
- (3) 쉽게 入手possible한 天然資源.
- (4) 「自作農場法」으로 價格없이 處分되는 土地.

以上만 본다면 「美國의 發展」이나 「自由土地」 같은 假說이 얼마나 多樣한 해석이 가능한 命題인가를 짐작케 해 준다.

Perlman의 可能的 說明群



術 語

- Y— 勞動의 相對的 配分의 維持 또는 增大
- O— 機會
- L— 立法的 壓力的 範圍
- WP— 權力에 의 意志
- A— 資本主義體制的 受容
- I— 知識人의 影響
- R— 資本主義에 對한 抵抗力
- WR— 抵抗하려는 意志
- WO— 組織化의 意志
- Other— 餘他的 事件
- E— 勞動史의 一事件으로서 보통 勞組의 極端化의 弱화

어쨌든, 舊式歷史家가 理論의 使用을 거의 缺如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事例로서 Perlman의 「勞動運動의 理論」(*Theory of Labor Movement*)을 본다면 이는 理論이기 보다는 一群의 「可能한 說明」들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圖示의 方法으로 앞페이지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圖示에서 보이듯이 Perlman은 「自己完結的인 一般的 理論模型」을 活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個個의 事件에 대한 「特定한 關係」를 「說明」할 뿐이고 이의 方向과 記號를 나타낼 때, 가령 $Y \rightarrow A$ 는 「勞動의 相對的 配分の 維持 또는 增大가 資本主義體制의 受容에 대해 正의 效果를 갖는다」는 뜻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個別事件에 관련되는 하나의 說明일 뿐이지 그 自體가 首尾一貫性 있는 理論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理論의 活用이 歷史家의 作業에 中心的 課題를 던져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령 企業理論, 消費者理論, 價格理論 같은 것이 史家의 論題에 登場되는 수가 있고 經濟學者나 社會理論家와 同一한 言語와 同一한 問題를 史家들이 驅使하고 또 論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理論 그 自體를 「活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

아홉째는, 舊式 歷史가 常識的 接近方法을 채택하고 또 古文書記錄의 資料를 強調하기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誤謬이다. 우선 古文書資料란 一般的으로 秘密議定書나 條約文의 作成者에 대한 解答은 될지언정 그것이 어떤 母集團全體나 標本構成에 注意를 기울여야 될 문제는 해명해 주지 않는다는 點이 그것이다. 다음에는 史家들이 歷史的 現象의 說明을 그 源泉에서 찾을 意圖에서 可能한 限 最大로 逆行·遡及해서 그 始原的 條件에서 그 意義를 強調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를 計量的 側面에서 보면 그 意味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現在의 GNP의 變動을 說明함에 歷史家는 그 始原에 있어서의 變動을 문제 삼지만 이를 量的 次元에서 볼 때는 相當期間에 걸쳐서의 僅少한 變動에 不過하며, 문제는 짧은 期間에 있어서의 大變動이 歷史的 意義가 더 크다는 點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다음으로, 舊式 歷史가 犯하기 쉬운 마지막 誤謬는 歷史的 現象에 관한 價値判斷을 最終的 所得分配의 觀點에서 내리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가령 「피터大帝는 수 많은 極惡을 행했지만 러시아가 그후부터 強大해 졌다는 根據에서 이러한 行爲는 옳은 것이었다」는 意見이라든가, 「美國 南北戰爭의 意思決定者들은 政策上의 어떠한 社會的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聯邦體制를 保存했기 때문에 賢明했다」고 하는 등속의 價値判斷은 잘못된 政策의 犧

(9) Ruben A. Kessel and Armen A. Alchian, "Meaning and Validity of the Inflation-Induced Lag of Wages behind Prices," in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0, pp.43-66.

性은 過去의 世代에 轉嫁시키고 그 果實은 現在의 世代가 따먹는다는 論法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게 된다.

以上の 諸問題點에 의해서 指摘할 수 있드시, 舊式 歷史家들은 歷史를 敘述의 集積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詳細한 敘述로부터의 說明・解釋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派生되는 문제 중에는 歷史教育上的 重大한 문제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舊式 歷史教育이 大學의 學部레벨에서는 陳腐한 眞理를 受動的으로 수없이 注入시키기 때문에 歷史教育의 內容이 高度로 審美的이 되지 않으면 命令調의 權威主義로 흐르는 傾向이 길어 理性에 의한 論證이 아닌 순전한 事實들의 集積에 의한 重壓을 加해 올 뿐이고, 大學院레벨에서는 學生들에게 傳達할 體系的 技術과 戰略的 知識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그 教育이 徒弟制的 性質의 것으로 되기 마련인 것이다.

지금까지 筆者는 舊式 歷史의 研究方法이 가지는 問題點들을 摘出해 왔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結局 新經濟史는 이와 같은 舊式 歷史의 誤謬를 除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經驗主義의 旨을 特徵으로 하는 現代의 歷史研究는 標準化된 公理의 理論의 導入에 의해서 그 言語와 術語의 選擇이 크게 달라졌으며, 數量的 作業의 強調에 의해서 術語上的 曖昧性과 難點이 減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經濟史에 있어서는 누가 理論家이고 누가 歷史家인지 조차 分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新經濟史에 있어서 眞正한 斬新性이란 그 語調・文體나 主題 또는 研究對象(時期・問題)이 달라진데 있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言語와 歷史的 方法과 歷史的 知識이라는 것이 이제는 經濟理論의 協力없이 獨力으로 存立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新經濟史의 이러한 斬新性을 具體的으로 論하기 前에 먼저 이러한 새로운 研究方法이 發生하게 된 背景을 理解하기 위하여 간략한 學說史的 素描를 試圖해 보기로 한다.

III. 學說史的 素描

萬一 우리가 新經濟史學의 特徵을, 감정적으로 舊式 歷史가 質的 變動의 研究에 置重하는 데 對比하여, 數量的 變動의 研究에 置重함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學說史上으로 다음과 같은 先驅的 文獻들을 列擧할 수 있겠다.

이미 17世紀에 King, Graunt⁽¹⁰⁾ 같은 政治算術家들에 의하여 經濟史의 어떤 側面에

(10) 그 書名을 紹介하면 下記와 같음. Gregory King,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Upon the State and Condition of England 1696*; John Graunt, *Natural and*

관한 說明을 數量的 資料로써 推論하려는 試圖가 있어 온 以來, 1851年에는 William Newmarch⁽¹¹⁾가 外換어음의 循環에 관한 統計의 接近을 꾀했고, 그후 F.W. Taussig, Arthur Cole, W. B. Smith⁽¹²⁾ 등에 의한 過去歷史에 대한 數量情報의 推計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近年에 와서는 美國에서의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龐大한 統計情報과 그것을 利用한 學者들의 研究(가령 Simon Kuznets)⁽¹³⁾라든가 R.C.O. Mathew의 景氣變動史研究⁽¹⁴⁾ 등은 計量的 經濟史의 研究를 促進해 온 先驅의 業績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萬一新經濟史의 特色을 經濟理論과 經濟史의 再統合이란 角度에서 考察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學說史的 素描가 역시 可能하다.

經濟史의 學問的 獨立은 19世紀 中葉부터 古典派經濟學의 演繹的 理論에 대한 反撥에서 출발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獨逸에서 Roscher와 Knies, Hildebrand 그리고 Schmoller가 領導하고 英國에서는 Leslie, Ingram, Ashley에 의해서 領導된 歷史學派의 本來의 目標은 演繹的 經濟學의 非現實的인 諸理論을 排除하고 歷史研究를 통한 歸納的 經濟理論을 確立하자는데 있었다. 그런데 半世紀餘에 걸친 歷史學派의 이와 같은 問題意識의 表明과 우수한 歷史研究의 成果에도 不拘하고 이들이 古典派理論에 代置될 新理論을 확립시키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다.

1901年에 Thorstein Veblen은 歷史學派의 成果를 評價하기를 古典派理論을 補完하고자 한 그들의 努力은 決定的으로 失敗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30年後 J.H. Clapham도 이를 再確認하여, Schmoller에 의해서 조차 理論과 歷史를 統合하고자 했던 當初의 試圖은 失敗했다는 데 大部分의 學者들이 同意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⁵⁾

Political Observations Mentioned in a Following Index and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 (London, 1662).

- (11) 그 論文의 題目이 아래와 같이 장황하다. William Newmarch, "An Attempt to Ascertain the Magnitude and Fluctuations of the Amount of Bills of Exchange (Inland and Foreign) in Circulation at One Time in Great Britain, in England, in Scotland, in Lancashire, and in Cheshire, Respectively, During Each of the Twenty Years 1828—1847, Both Inclusive; and Also Embracing in the Inquiry Bills Drawn Upon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XIV(1851).
- (12) 代表的 業績으로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Frank W. Taussig, *The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88; Walter B. Smith and Arthur H. Cole, *Fluctuations in American Business 1790—1860*, 1935; Arthur H. Cole, "Seasonal Variation in Sterling Exchange," *Journal of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II. Nov. 1929.
- (13) 가령 初期의 業績으로서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Simon Kuznets, *National Product Since 1869*, 1946; 또는 Simon Kuznets, *Secular Movements in Production and Prices: Their Nature and Bearing Upon Cyclical Fluctuations*, 1930.
- (14) Robert C.O. Mathews, *A Study in Trade Cycle History; Economic Fluctuations in Great Britain, 1833—1842*, 1954. 以上の footnote (10)~(14)의 諸文獻은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60, p. 541에서 轉載.
- (15) Thorstein Veblen, "Gustav Schmoller's Economics," *Q.J.E.*, Nov., 1901; J.H. Clapham,

그러나 이것이 失敗했다는 認識으로 因해서는 經濟史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固有의 經濟學과의 再結合이 다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20世紀에 넘어 올 무렵 Ashley가 하버드大學에서 最初의 經濟史 講座를 담당하면서 이 두 敵對的 關係에 있던 學問分野사이의 休戰을 要請하게 되었다. 그는 經濟史가 演繹的 經濟學과 對立되는 理論을 확립하기 위해서 競爭할 必要가 없다고 主張하고, 經濟史는 「獨自의으로」 存立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의 見解로는 固有의 經濟學과 經濟史는 前者가 現代經濟의 靜態的 屬性에 焦點을 두는데 比하여 後者는 經濟社會의 展開過程 또는 經濟成長을 다루는 것과 같이 그 問題領域이 相異하기 때문에 對立을 避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經濟史는 「歷史家의 領域에 屬하는 產業上의 現象에 관한 說明에 있어서도 經濟理論의 習得이 不可避하다」고 한 J.N. Keynes의 主張에 대해서도 Ashley는 「經濟理論은 經濟現象間의 前後關係에 대해서 밝혀주는 바가 거의 없으며 이는 『단순한 常識』의 應用으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應酬하고 있다.⁽¹⁶⁾

이리하여 Ashley가 要求한 休戰은 半世紀餘나 持續되어 왔으며 這間에 있어 知的 論爭은 中斷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經濟史 部門에서 Callender, Heckscher, Cole, Hamilton, Rostow 같은 學者들은 經濟理論과 統計學을 經濟史研究에 效果的으로 應用하고 있었고, 한편 經濟理論 本來의 分野에서도 經驗主義의이고 歷史指向의인 分析이 Ashley가 豫見했던 바 보다 훨씬 廣範히 發達되어 갔다. 이러한 傾向의 研究를 위해 核心的 役割을 한 것은 前述한 美國의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로서 여기서 Wesley Mitchell, Simon Kuznets 같은 學者들에 의하여 美國經濟의 發展에 관한 廣範한 經驗的 研究에 理論과 統計가 應用되어 왔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사실상 1941년까지도 經濟史와 經濟理論 사이의 關係는 本質的으로 休戰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 해 Edwin F. Gay가 美國經濟史學會 初代會長에 選任되면서 如前히 남아 있던 兩學問間의 反目을 인정하고 그것을 除去할 것을 주장 했다. 그는 「完全한 協同은 아직 容易하지도 않고 眞心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오늘날 經濟史家의 첫째 課業은 이 두 學問사이의 完全한 連結에의 길을 트는데 있다」고 했다.⁽¹⁷⁾

그러던 중 經濟史와 經濟理論의 再統合이 促進되기 시작한 것은 第2次 世界大戰以後부

“Economic History as a Discipline,”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V, 1930. 以上 두 가지 모두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5, pp.97-98에서 轉載.

(16)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5, p.95.

(17) Edwin F. Gay, “The Tasks of Economic History,” in F.C. Lane, ed.,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 1953, p.412.

터이다. 이 趨勢를 刺戟한 諸要因 가운데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特記할 만하다. 그 하나는 經濟理論이 包容하는 模型의 射程距離와 精度가 括目할 만큼 增強되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經濟學의 여러 分野에서 一般的 模型을 特殊한(歷史的) 狀況에 適用하는 實驗이 增加해 간다는 사실이다. 後者は 特히 計量經濟學과 應用數學의 發達에 의해서 자극된 實驗을 말한다. 이와 같은 傾向의 發展에서 1920年代에 Heckscher가 經濟史의 研究에 理論의 導入을 더욱 增大해야 된다고 孤高히 부르짖던 主張이 이제 1950年代에 와서는 어느정도 常識이 된 것이다.⁽¹⁸⁾ 2次 大戰以後의 經濟史 教材들은 「歷史的 經驗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經濟分析의 體系」에 依存해야 됨을 闡明하고 「經濟原理의 強調」를 優越의 表徵으로 取扱하게 되었다.⁽¹⁹⁾

그러나 우리가 注意해야 될 사실은 經濟史의 經濟理論과의 再統合은 단순히 教科書에서 理論을 即興의으로 強調했다고 해서 實現되는 것은 아니었다. 再統合은 經濟史學의 基礎 作業에 있어서 經濟理論을 必須不可缺의 手段으로서 利用할 것을 要求한다. 이러한 條件을 充足시킨 것은 美國에서 1950年代末 乃至 1960年代初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른바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傾向에서 뚜렷이 看取할 수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로도 알 수 있듯이 經濟史의 計量的 研究나 經濟理論과의 統合化試圖는 比較的 일찍부터 擡頭된 傾向이라 하겠으나, 最近 이러한 研究傾向에 一大迫車를 加하여 經濟史學에 新經濟史 또는 計量經濟史 또는 Cliometrics란 名稱을 붙일만큼 革新性을 가져오게 한 契機는 1957, 8년에 發表된 John R. Meyer와 Alfred H. Conrad의 諸研究論文이다.⁽²⁰⁾ 1960년부터는 이 새로운 接近方法의 應用研究에 세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美 Purdue大學에 「經濟史의 計量的 方法에 관한 세미나」가 週期的으로 開催되어 經濟史 研究에 經濟理論의 數學的·統計的 模型을 應用하는 接近方法을 刺戟하게 되었다.⁽²¹⁾

그 뿐만아니라 60年代 中盤부터는 美國의 各 主要大學에서 計量經濟史研究와 이의 教

(18) Eli F. Heckscher, "A Plea for Theory in Economic History," F.C. Lane, *op. cit.*, pp. 421-430.

(19) 그 代表的인 경우로서 다음의 세 가지 教材를 들 수 있다. Ross M. Robertson, *History of the American Economy*, 1955, p. xi; L.E. Davis, J.R.T. Hughes and D.M. McDougall, *American Economic History*, 1961, Preface; Donald L. Kemmerer and C. Clyde Jones, *American Economic History*, 1959, Preface.

(20) John R. Meyer and Alfred H. Conrad, "Economic Theory, Statistical Inference and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VII (Dec., 1957); Alfred H. Conrad and John R. Meyer, "The Economics of Slavery in the Ante Bellum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58. 이 두 논문은 New Economic History를 誕生시키는데 古典的인 價値를 發揮했는데 Alfred H. Conrad and John R. Meyer, *The Economics of Slavery*, 1964에 再錄되었음.

(21) 이 세미나를 中心한 Purdue大學의 新經濟史研究의 諸成果를 收錄한 論文集으로 *Purdue Faculty Papers in Economic History*, 1956-1966,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dministration, Purdue University, Monograph Series*, 1967.

育을 促進하기 위한 努力이 傾注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하바드大學 Alexander Gerschenkron 教授의 經濟史研究室(Economic History Workshop), 워싱턴大學 Douglas North 教授의 經濟史세미나, 퍼듀大學과 위스콘신大學의 大學院經濟史課程, 펜실바니아大學의 學際的 經濟史課程(interdisciplinary programme for economic history), 버클리·스탠포드兩大學의 經濟史合同세미나, 예일 大學 William Parker 敎수의 經濟史세미나, 쉬카고 大學의 經濟史研究室 등의 活潑한 動向이다.⁽²²⁾

이러한 새 動向에서 中樞的 役割을 한 學者로서 前記한 Conrad 와 Meyer 以外에 Douglas North 와 Robert Fogel 을 들 수 있으며, 前者는 南北戰爭以前의 美國經濟成長에 관한 研究를 中心으로 新經濟史의 旗手가 되어 이 方面의 研究에 許多한 可能性을 鼓吹했고, 特히 後者 Fogel 教授는 美國의 鐵道建設이 經濟成長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를 中心으로 計量經濟史의 體系와 內容을 擴充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²³⁾

그러면 이들에 의해 많은 論議를 일으키게 된 新經濟史의 性格을 具體的으로 理解하기 위하여 以下에서는 그 研究方法上의 特徵과 그 研究成果를 關係되는 事例의 研究를 提示하면서 밝혀 보기로 한다. (以下 次號繼續)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敎授)

(22) R.W. Fogel, "The New Economic History: Its Findings and Method," *The Economic History Review*, Dec., 1966, p.643.

(23) 兩人的 主要著書는 아래와 같다. Douglas C. Nor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United States 1790-1860*, 1961; Douglas C. North,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1966; Robert W. Fogel, *The Union Pacific Railroad: Case in Premature Enterprise*, 1960; Robert W. Fogel,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Essays in Econometric History*, 1964.